

시편: 45장

후렴: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위엄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오른손이 찬란한 위세를 떨치소서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찌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찌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찌라
그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하리로다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되어 가는도다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의 뒤를 이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토록 견고하리로다)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1 장 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중보기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도와주소서. 온갖 조롱과 수모를 이겨 내신 주님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헤쳐 나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진정 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버리고, 빈 마음이 되고, 참사랑이신 주님만 갖고자 합니다.
오, 주님만이 제 소유요, 제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때만이 제 영혼이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수도의 목적은 자기 죄를 통회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하는 것은 완덕을 이룬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하고 사랑의 연緣을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일치, 이것이 수도생활의 목적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23장

후렴: (주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며
של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4 장 13~2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 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중보기도:

핵가족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소외되는 젊은이 또는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가족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세대 간의 이해 폭이 넓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진리의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스도는 사랑, 생명이니, 항상 믿음으로 묻고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모든 생명,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알아 선을 행하게 하소서.

(성금란)

오늘의 묵상 글:

성모님께서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누가복음 1장 38절) 하고 순종하신 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미천한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임의 가슴은 희생과 평화, 자비와 화목, 사랑의 광장이요, 어머니의 넓은 가슴이어야 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어머니의 심장이여! 능히 못하심이 없으신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면

임은 능히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 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은 사도가 아니어도 천사를 모실 수 있습니다.

임은 사랑의 어머니가 되라고 예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베드로전서 1장 2절. 골로새서 3장 12~17절 참조).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시편: 19장 1~7절

후렴: (주는 나의 등불을 밝혀 주시고 나의 어둠을 비추나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도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시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도다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나의 등불을 밝혀 주시고 나의 어둠을 비추나이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6 장 27~31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중보기도:

지역과 교회, 공동체와 개개인 안에 있는 이기주의가 사라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회를 회피하는 이 자식이옵니다.
환난의 기회만 있으면 회피하였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환난을 도리어 기뻐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우리는 진리의 제자입니다.
은총을 받은 제자이고자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88장 8~18절

후렴: (주여, 내 기도가 주님 어전에까지 높이 미치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그들에게 가증되게 하셨으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없는 사람이 되살아서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말하리이까,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을 보이거나 하리이까
잇몸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주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다
주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 같이 종일 사방에서 나에게 밀어닥쳐
한꺼번에 나에게 완전히 덮쳤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기도가 주님 어전에까지 높이 미치게 하소서)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8 장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기도:

인자하신 주님, 온갖 불의와 혼란이 기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지켜주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의 지킴이로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맡겨진 복음을 충실히 실천하고 전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혼의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니,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겸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19장 145~152절

후렴: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으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좇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주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법을 궁구하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새벽부터 일어나 도움을 청하며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나이다)

성경말씀: 에베소서 2 장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굽어살피소서. 소외된 이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저희도 주위의
소외된 이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이 땅 위에 있는 동안
제게 주어진 환경은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제 영혼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것을 믿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제 마음 맑아져야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다 뱀과 독사의 마음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겉으로는 다 선한 듯 하지만 속에는 평토장(平土葬)한 무덤이로소이다.

시편: 25장 1~11절

후렴: (주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의지하였나이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나니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다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주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나니
주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주의 언약과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길은 인자와 진리이니라

주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모든 길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7 장 1~8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를 주님을 위하여,
하나를 모세를 위하여,
하나를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중보기도: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증거를 보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에 자비로 사랑할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에도 달게 희생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침묵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은 능하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그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생명이시여! 역사하심을 빕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기 소원합니다.
저의 좋지 못한 성품 다 고침 받고, 완전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시편: 28장

후렴: (주는 목자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나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앞에서 잠잠하신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대로 갚으시며
그들 손의 지은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그들은 주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치 않으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니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주께 찬송하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상속으로 주신 땅에 복을 주시고
영원히 그들의 목자가 되옵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는 목자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나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21 장 15~17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중보기도:

공정하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쳐 내고 언제나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을 깨닫지 못함은 슬픈 일입니다.
'나'라는 것이 살아있고 전척하는 이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못하십니다.
거듭나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은 가끔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0장

후렴: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은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주여, 내가 깊은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찐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주를 바랄찌어다
주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바로 주께서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은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4 장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중보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인 안목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님
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제 허물 깨닫고, 남의 허물 상관 말고,
스스로 검비하고 사람들 실수를 관대히 보게 해 주소서.
아버지 앞에 자복케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고, 다음으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협조하고 도와줄 때 빛의 자녀가 됩니다.

2026년 8월 9일 일요일

시편: 118장 10~18절

후렴: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못 백성이 이 몸을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불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높이 들렸으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4 장 22~33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써 뛰어난 근면성과 절약 정신으로 얻은 부를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선용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평화의 왕이시여,
성스러운 주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핏방울이
제 가슴속에 젖어들 때만 제 영혼이 평화롭습니다.
이 평화 안에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사랑도 되고 순결도 지키고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의 작음은 사랑입니다.
겉질은 좁고 고생스럽고 약합니다.
그러나 속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행복합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7장 1~9절

후렴: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주여,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 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주여,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주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어
나를 위하여 깨우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주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주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성경말씀: 호세아 14 장 2~9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앓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중보기도:

보호자이신 주님, 오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살피 주시고, 좀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자비의 주님,
뜻을 계시하시는 성령이여,
미리 아시는 하느님이여!
저와 동행하여 주소서.
앞으로 남은 때를 주님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일의 뒷처리를 주님께서 친히 홀로 하시기 바라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바른 믿음은 내가 주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한복음 15장 16절) ,
주께서 나를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로마서 9장 16절).
내가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시므로 염려 없습니다(고린도후서 5장 14절)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13장

후렴: (나의 하나님, 굽어보시어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응답하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기었다 할까 하나이다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주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의 하나님, 굽어보시어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성경말씀: 창세기 2 장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중보기도:

이 땅의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슬한 난관에 부딪혀 패배주의와 상처로 가득 찬 청년 세대들이 복음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무엇이나 제 것은 없애고 그리스도를 얻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고 계시오니
저도 주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선 당신을 버리고 저를 붙잡으셨으니,
저도 저를 버리게 하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으셨겠습니까?
아! 주님, 그렇게도 제가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저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어디가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의 결과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군요!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시편: 7장 10~17절

후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마음 곧은 사람을 살리시도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나니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악한 자들의 악행은 뿌리 뽑으시고
의인들은 굳건히 세워주시는 주시도다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주께서 그 칼을 갈으시리니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리니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잉태하고
잔해와 궤환을 낳았도다
그들이 웅덩이를 파 만들었 것 만은
그들이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되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로 돌아가리다
내가 주의 의를 따라 감사하리다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마음 곧은 사람을 살리시도다)

성경말씀: 다니엘 2 장 20~22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데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중보기도:

장애인들을 위한 관심이 잘 활성화되고, 주위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불 속에
이 몸도 훨훨 타서 먼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은 울타리도 없고, 국경도 없고,
사랑의 평화가 있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공동체나 개인이나 문제는 결국 사랑이 동이 났다는 말입니다.

사건이 병이 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가슴에 병이 나서 사랑이 없고 하느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 사랑을 못 받은 탓입니다.

이유는 그 것뿐입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119장 153~160절

후렴: (주의 말씀은 진실이며 주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으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 탓이니라
주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원수가 많으나
나는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저들
나는 그 배신자들을 보며 역겨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주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진실이며 주의 의로운 법규는 영원하나이다)

성경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 장 6~8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중보기도: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싸매고 치유하는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품속에 숨을 때만 두려움은 떠나가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샘 같은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달을 비춰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추기 때문에 마리아는 저절로 성스러워집니다.
빛이 나고 후광이 납니다.

예수님을 쳐다본다는 것 관상 생활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앉아 있듯이 앉아 있는 것이 관상입니다.

시편: 26장

후렴: (주여, 나는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리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않았나이다
주를 믿고 의지하였나니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걷고 있었나이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았나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않나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나이다

주여, 내가 무죄하므로 손을 씻사아며
주의 제단 둘레를 돌고 있나이다
찬미의 노래소리 울려나게 하면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다

주여, 내가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하며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나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놔두지 마소서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다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데 섰나니 회중에서 주를 송축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나는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리다)

성경말씀: 시편 23 장 1~6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של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중보기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몸소 위로하시고, 치유의 희망을 언제까지나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주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죄를 질 때는 두려운 아버지이지만,

회개하는 아들에게는 피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요,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수도자는 자기 영혼에 자기 살을 양식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15일 토요일

시편: 34장 1~10절

후렴: (주를 찾는 이들, 복을 받아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주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주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주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으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찌라도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찾는 이들, 복을 받아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 장 39~45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의식주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을 거짓말이 없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하심과 그의 깊으신 사랑은 모르면서 생활만 고쳐보려 애쓰는 것은 허사요, 헛꿈이요,
헛세월만 보내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죽는 일 때까지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이 사랑만 알고, 평안할 때
즉, 그 괴로움에 대항하거나 도피하거나 변명하지 않을 때,
아버지의 참되신 능력과 보호와 사랑이 홍수처럼 흘러내려올 것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76장

후렴: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여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주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도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찌로다
주께서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5 장 21~28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중보기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결론은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천국은 가장 겸손하신 이들의 집단이요,
서로 섬기려는 이들만이 모이는 곳이요,
남을 유익케 하고 자기는 희생하는 이들의 나라입니다.
겸손한 이들만이 선발되는 나라이고,
꽤 많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고 남을 희생시키는 이들은 퇴장당하는 나라입니다.

시편: 40장 1~8절

후렴: (주여, 주의 사랑 그 진실하심으로 항상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의지하리로다
복되여라 주께 그 믿음을 두는 사람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고, 거짓된 변절자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주 나의 하나님이며,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계획을 그 누가 당해 내리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해도
그것들은 헤아릴 수 없도록 많나이다

주여, 주는 희생과 제물은 즐기지 않으시고
번제나 속죄의 희생일랑 드리라 하지 않으셨도다
오히려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주는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나이다

보소서 이 몸이 주 앞에 대령하였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주의 사랑 그 진실하심으로 항상 나를 지켜주소서)

성경말씀: 시편 10 장 14~18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중보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결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희생은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죽어질 때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분이셨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53장

후렴: (야곱은 기뻐 춤추고 이스라엘은 기뻐 즐거워하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리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도다

너를 대하여 진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흠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로
네가 그들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야곱은 기뻐 춤추고 이스라엘은 기뻐 즐거워하네)

성경말씀: 마가복음 9 장 35~37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중보기도:

위로자이신 주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희 민족을 굽어살피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각각 자기들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첫 계시입니다.
이 길만이 개인이나 모임이나 모든 인류의 평화의 길입니다.

이 겸손의 덕이 매일매일 제 삶 속에 스며들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소화小花들이 가는 곳에 사랑의 열매가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오, 작은 진달래가 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시편: 55장 1~12절

후렴: (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 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나이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그들이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나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 혀를 나누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리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이 있사오며
폭력과 사기는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 드리라, 그분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성경말씀: 요한1서 2 장 3~6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중보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힘써 옳은 일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참으로 믿으면 쉽고 기쁘고 권능일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면 어렵고 힘들고 안 되어질 것이니, 이는 전혀 아버님 권능과 사랑을 모른 까닭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서 감격하여 감당할 자 누구이며, 그 권능을 알고서 의지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56장

후렴: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채워야 하리니, 찬미의 제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들이 심히 많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나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그들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그들이 죄악을 짓고야 피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여 못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줄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내 발이 넘어질까
불들어 주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채워야 하리니, 찬미의 제사를 드리나이다)

성경말씀: 다니엘 7 장 13~14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중보기도:

평화의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계를 굽어살피시어, 온 인류가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며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게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다는 것은 다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번민이 있는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모두 제 탓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제 성품과 마음을 바로 잡아 주소서.

제 성품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나이다.

주님만이 저를 고칠 수 있고 바로 잡아 주실 수 있사옵나이다.

시편: 58장

후렴: (사람들은 이르되 주께서 진정 의인에게 상급을 주시도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을 행할찌라도,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주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소서
그들로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유산된 태아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생 것과 불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의인은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리니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람들은 이르되 주께서 진정 의인에게 상급을 주시도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22 장 24~27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중보기도: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의 양
분을 먹고 자라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여, 받으소서.
저와 사람과 물질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내가 나를 어쩔까도, 내가 남을 어쩔까도, 내가 물질을 어쩔까도,

다 주님께 맡겨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숯이 불 속에서 완전히 불덩이가 되는 것과 같이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면 "영"입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영"입니다.

시편: 61장

후렴: (주여, 내 항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예 주의를 기울려 주소서
내 마음이 놀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여, 내 항상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성경말씀: 사무엘상 3 장 1~ 9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중보기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고, 인격적인 지도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회개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사랑의 보혈에 항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죽고, 예수님같이 다시 나게 하소서.
그 뜨거운 은총의 사랑으로 성화되는 전 인격적인 체험을 통하여
주님같이 되는 것이 소원이나이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사랑 없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3일 일요일

시편: 118장 10~18절

후렴: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못 백성이 이 몸을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 같이 소멸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주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높이 들렸으며
주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않으셨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의 오른손이 큰일을 하셨도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6 장 13~16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중보기도:

가족의 보살핌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소외감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는
주위의 관심이 있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모든 일에 주님의 심장으로 하게 하소서.
온 정성을 다하여 일을 처리할 때
땅 위에서 평안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
"아들아, 내가 함께 하리니 앞 일에 겁을 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그분 본질이 물이요, 빛이요, 흙이요, 바람이라면 만물은 임의 빛을 받아서 임의 본질을 마시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만물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의 빛이요, 물이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그분의 살과 피입니다.
임의 본질이 있다면 그는 자비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먹고 자비를 마시고 삽니다.☺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 김준호)

시편: 71장 1~14절

후렴: (내 입은 주의 찬미로 가득 차 있어 온종일 찬양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토록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악인의 손에서 빼내소서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불드신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으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니
나의 입에 주를 찬송함이 가득 차 있고
종일토록 날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며,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언제나 주께 희망을 두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내 입은 주의 찬미로 가득 차 있어 온종일 찬양하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2 장 46~50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중보기도: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우리 영혼은 오로지 자기 부정 속에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참된 기쁨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자기가 범한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자기 스스로 죽어질 때만 물밑듯이 찾아옵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 주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영의 문제란 영의 양식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의 피와 살이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우나,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친히 먹여주심을 아
실 것이나,
지식으로 알려 해서는 도저히 모릅니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74장 1~12절

후렴: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주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발하시나이까
하나님, 돌이켜 살피소서
주께서 얻으신 백성이 아니십니까

주의 소유로 속량하신 지파를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옵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원수가 주의 회중에서 흰화하며
자기 기를 세워 표적을 삼았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나이다

이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덮었나이다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않으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원수가 언제까지 뒤흔들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주께서 해와 달을 만드셨나이다)

성경말씀: 에베소서 1 장 3~6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중보기도:

모든 성도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게 하시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사 고난을 성장의 디딤돌로 삼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열어 보이시려고 택하신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의 자비의 사랑, 그 은총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은총, 그 사랑, 그 자애를 넣어 주시려고
골라낸 그릇 밖에는 부어줄 그릇이 없습니다.
주인이 쓰려고 골라온 그릇은 크거나 작거나 잘 생기거나 못 생기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택한 그릇은 잠잠히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주님! 주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산 말씀입니다.
물고기는 산 물에서 삽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의 산 말씀에서만 삽니다.
말씀을 붙어 넣으소서.
제 속에 말씀을 붙어 넣어 주소서.
산 말씀으로 살게 해 주소서.
산 말씀에서 힘을 얻도록 해 주소서.
산 말씀이 저를 굳세게 해 주소서.

시편: 70장

후렴: (주를 찾는 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쁘고 즐거워하리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목숨 빼앗으려고 노리는 자들이
수치와 창피를 당케 하여 주소서

내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나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두고 조롱하는 자들은
낮을 가리고 도망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 하리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니
주여, 지체치 마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찾는 이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쁘고 즐거워하리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5 장 12~15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중보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종교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사적인 마음으로 사는 생활에서 벗어나 날마다 세상 속에 소금으로, 희망의 불로 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랑하게 해 주소서.
주님 기쁘게 해 드리고 슬프시지 않게 되기를 비나이다.
이 땅에 참 사람을 보내주소서.
마음 너그럽고 깨끗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요한복음 12장 25절)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살고자 하고, 껍을 부리고 순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만 죽습니다.
자기만 희생이 되고, 자기 영혼만 죽습니다.
역사의 한중간에서 우리들은 선택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참 일을 맡기고 싶어서 불러낸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79장

후렴: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 주의 목장의 양떼들이나이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유산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 짐승에게 주었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 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주변 사람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 또한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어느 때까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 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다
우리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으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속히 우리를 영접하소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주의 종들의 피 흘림 당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 열방 중에 알리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훼방한 그 훼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소서
그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떼들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 주의 목장의 양떼들이나이다)

성경말씀: 요한복음 13 장 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중보기도:

일치의 주님, 함께하는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적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민족, 정치, 종교, 이념을 이유로 대립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 주님, 제 가슴에서 자비의 샘이 터져 강이 되어 흐르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지신 보배 가운데 자비만이 주님의 유일한 보배이시니,
앞으로 제가 구하는 것은 그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제게 주신다면,
성삼위와 전 인류와 모든 영혼들에게
참 평화와 강이 흐를 것을 믿습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분신이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重生한 다음에 사랑할 수 있지 부모가 낳아준 몸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동광원 집회 설교, 김준호)

시편: 22장 12~22절

후렴: (예수의 겔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을 놓고서 제비 뽑았도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돌렸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잇들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보고 좋아라 하나이다
내 겔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주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의 겔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을 놓고서 제비 뽑았도다)

성경말씀: 마태복음 26 장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중보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의 분단의 깊은 골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가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놓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를 인도하여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은총으로 내리시는 성령의 성품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본질을 읽을 때,
제 영혼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뻐 뛰나이다.
그 말씀들이 제 가슴에 스며들어
제 영혼이 항상 기뻐 뛰도록,
성령이여, 제 안에 오시옵소서.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오! 주님,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만 제 영혼이 평안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듭니다.

(저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김준호)

시편: 34장 1~10절

후렴: (주를 찾는 이들, 복을 받아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주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주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주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으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찌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찌라도
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를 찾는 이들, 복을 받아 아무 부족함이 없도다)

성경말씀: 요한1서 2 장 7~1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라,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중보기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과 종교분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을 통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오직 평화의 열쇠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라고 내어주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이는 주님의 품에만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준호)

오늘의 묵상 글:

병도 가난의 식구일 것입니다.
모멸(侮蔑)도 가난의 식구일시다.
제가 참으로 가난해지고 주님께게서 부를 발견케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 권리가 없으나, 천국을 상속하니 유권자가 되게 복을 비소서.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시편: 76장

후렴: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음이여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주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분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에도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다

너희는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찌로다
주께서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나님이신 너희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켜라)

성경말씀: 마태복음 16 장 24~27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중보기도:

진리의 빛이신 주님, 몸과 마음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돌보아 주소서. 저들이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서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아버지는 저를 일 초 동안도 안 잊으시건만,
저는 주님을 늘 잊어버리나이다.

주님, 더 기억하는 은혜내리소서.
성령이시여,
아버님과 성령의 보호 밑에 늘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안심하고 즐겁게 주님 뜻 기다리게 해 주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아가서에 있는 신부와 같이 제 모든 재화를 다 바치고도 아무것도 바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야 합니다.
'다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드린 것 같이 부끄럽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종의 심정입니다. 일을 다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한 것 같이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 뿐입니다. 제 생명을 바쳤는데도 아무것도 바치지 않은 것 같이 부끄럽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할수록 부끄럽고 목이 마릅니다.

(그분께서 일러주신 말씀, 김준호)

시편: 82장

후렴: (만 백성을 쥐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었도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어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찌니라 하시도다

그들은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 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 같이 었더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만 백성을 쥐고 계시는 분은 바로 주이십니다)

성경말씀: 누가복음 12 장 22~25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중보기도: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자국의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보다 보편적 인류애를
먼저 생각하여 인류의 평화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하소서.

(자유기도):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기도:

주님, 사람들이 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님과 주님과 성령을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늘 실수만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 주옵소서.

(이현필)

오늘의 묵상 글:

주님, 제게 있는 것 모두와 주님과 바꾸어 주소서.

다 가져 가시고, 다 없애 주시고, 주님께서만 제게 계셔 주시사,
제가 알던 모르던 저만 주관하사 영광받으소서.
주님 자비하심을 뚜fut이 드러내 주소서.
주님 인자는 제 생명보다 오히려 귀중하고 값이 있사옵나이다.

(365일 이현필 선생님과 함께)
